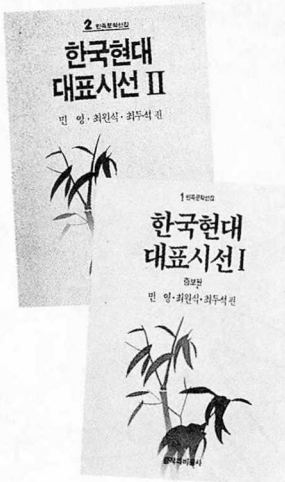


# 작품으로 보는 현대시사 교과서

민영 외 엮음 「한국현대대표시선」 전3권



민영·최원식·이동순·최두석씨가 편집위원이 되어 엮은 「한국현대대표시선」(I~III)은 “웅근 의미의 우리나라 대표시선”이자 “살아있는 현대시사의 교과서”라 할 만하다. “완벽한 선정에 의한 완벽한 시선의 간행”을 위해 고두한 흔적으로 점철돼 있기 때문이다.

편집위원들은 시 선정작업의 지난함과 격렬한 토론과정을 “시를 짓는 것보다 시를 아는 것이 어렵고 시를 아는 것보다 시를 뽑는 것이 어렵다”는 옛말을 빌어 단아하게 요약한다. “至公無私”라는 불가능한 경지를 그러나 끊임 없이 의색했음을 밝히는 각 권의 ‘책 머리에’는 수록된 529편의 시에 문학사적 무게를 더해준다.

편자들은 시 선정의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해 고민하며 중국의 두 예를 든다. 공자가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구체제의 옹호자로 지목되

어 批孔의 회오리바람을 맞은 일과 명나라 이반룡이 엮은 「唐詩選」에 백거이의 시가 한 편도 실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들이다. 문학적 평가는 “사람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할 수 있다”는, “편자들을 괴롭힌 가장 큰 문제”는 그러나 이 책의 독자들을 가장 즐겁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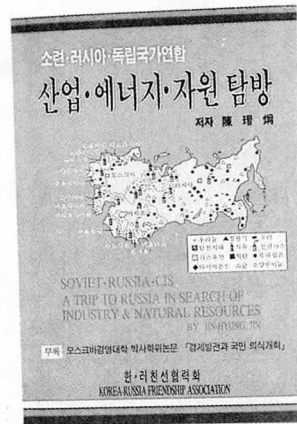
이들이 건지한 시 선정의 대원칙은 우선 “나라를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던 다산 선생의 말대로 “은뭍으로 시의 세계를 감당” 했는지의 여부이다. 부연하자면 “형식 또는 언어를 통해서, 아니 그것과 부딪치면서 변증법적으로” 높은 사상성을 획득했는지의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일체의 전통에 대해 탐욕적 태도를 견지” 함으로써 우리시의 다양한 경향을 “진정한 민족문학”의 품으로 수렴하고자 했다는 것.

그러한 “탐욕적 태도”는 이 책의 첫 페이지를 김억의 「봄은 간다」(1918)에 할애한다. 흔히 신체시의 효시로 기존 시선집에서 “신주처럼 모시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1906)는 “약간의 시사적 의미가 없지 않으나 내용과 형식의 양면에서 진정한 현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문으로 씌어진 자유시를 대상으로 이 책에는 1918년 이후 80년대까지의 대표시가 묶여 있다. 또한 십년 단위의 ‘해설’과 권말의 수록시인들의 약력은 독자들의 우리현대시사 이해에 큰 편의를 제공한다.

창작과비평사/A5신/각 310면 내외/각 4500원

# 공무원이 수집한 러시아경제 자료집

「소련·러시아·독립국가연합의 산업·에너지·자연탐방」



러시아·중국과의 수교는 우리나라의 통일 안보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세계 최대의 자원보유국인 이들 국가와의 선린관계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원자재의 자가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88년에 중국의 원자재 전반에 대한 「자원탐방 중국대륙기행」을 펴낸 바 있는 진진형씨가 이어서 「소련·러시아·독립국가연합의 산업·에너지·자원탐방」(한·러 친선협력회)을 펴냈다. 미·소 양극체제하에서 오랫동안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러시아에 관한 책자와 연구자료가 빈약한 상황에서, 이 책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교역증진 방안에 참고가 될 만한 각론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정리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그동

안 러시아·일본과 미국 등의 러시아문제 전문가나 해외 유수 대학교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거”해 저술했다고 자료의 출처와 내역을 밝힌다.

조달청비축계획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보급창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은 “불꽃튀는 자원전쟁상태”인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대책과 전략을 염두에 둔 목민관의 충정과 열정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이 책의 제1장 “소련은 세계제일의 자원보고”에서는 러시아의 원자재 전반에 대한 소개와 그 개발현황을 서술한다. 제2장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전략”에서는 일본의 시베리아 개발전략과 대비·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시베리아 개발계획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소연방 15개 자치공화국별 산업 원자재현황”을 다룬 제3장에서는 자치공화국들과의 경제협력 및 교역증진 방안이 다루어지며, 제4장은 첨단 기술산업과 신소재개발을 러시아와 중국의 광물자원과 연계하여 다룬 “소련·러시아의 원자재 관련 논설문”으로서 저자가 그동안 각종 매체에 게재한 글들이 모여 있다.

이어서 “불붙은 광물자원 전쟁”에서는 자원전쟁의 의의와 실상을 소개한 뒤 선진국들의 자원전쟁에 대한 대책과 전략이 소개되고, 제6장 “자원과 비축제도”에서는 선진국들의 비상시 자원의 안전공급과 사전확보 문제가 언급된다. 제7장은 저자의 소련 자원탐방기행문이며 마지막으로 저자의 ‘모스크바 경영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부록”으로 수록돼 있다.

한·러친선협력회/A5신/322면/5500원

## “책에 관한한 700-8204로 전화하십시오”

‘93년 책의 해를 맞아 책의해 조직위원회와 텔레کم 700에서 책에 관한 각종 정보를 도서음성서비스전화를 통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독자가 알고자하는 분야를 알기쉽게 제공합니다.

### 이용 방법

도서음성정보 서비스전화(700-8204/MFC 전화)를 이용하여 독자가 알고자 하는 분야의 도서서비스 코드를 누르면 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양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서울 부산 700-8204

도서음성정보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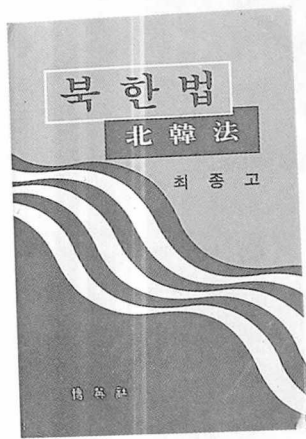
■ 새로 나온 책 : 1. 문학 2. 아동 3. 예술 4. 역사 5. 사회과학 6. 기술과학 7. 순수과학 8. 철학 9. 종교

■ 우수추천도서 : 1. 문학 2. 청소년도서 3. 종교·철학 4. 역사 5. 사회과학 6. 예술 7. 과학기술 8. 아동

■ 요즘 많이 읽는 책 : 1. 소설 2. 비소설 3. 시집 4. 인문과학 5. 사회과학 6. 자연과학 7. 컴퓨터 8. 어린이

# 체계화에 주력한 북한법 연구 디딤돌

최종고 엮음 | 북한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이는 작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현행헌법(신헌법)의 제1장 제3조이다.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승계하여 현실에 적용한 것”이라는 구헌법의 규정이 삭제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못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소련 및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의 몰락에 따른 변화일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구조와 특징을 알려면 법체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북한법」의 편저자 최종고(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밝힌다. “북한이해에 북한법의 파악이 무

엇보다 긴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법의 이해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뒤지고 미약하다”며 출간의의를 설명한다. “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고, 모를수록 파고들어 가능한 한 실체를 잡아보려는 것이 학자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러하여 이 책은 북한법에 대한 해석과 평가 대신 “전체적 조명(체계화)”에 주력한다. 본격적 연구를 위한 탄실한 디딤돌의 구실을 하게 될 이 책은 그러나 “저자의 전공이 법사상 법철학 분야이며 북한법 자체가 남한법과는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4장의 “북한의 법학과 법사상”이 그것이다.

북한의 법제도를 실정법규를 중심으로 살핀 제1장 “북한법의 개념”, 제2장 “북한법의 내용”, 제3장 “북한의 법생활”에 비해 제4장은 북한법의 史觀, 사상 등 법학이론을 다룬다. 저자는 북한법학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대전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지만, “법학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낙후되고 변질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스승과 어버이로서의 법”인 사회주의법의 일반적 양상은 물론, “유사종교적 법”으로서의 여러 특성들이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장인 “남북한 법의 비교”에서 저자는 남북의 법사상이 이질화되었을수록 “냉철한 합리적 정신으로 남북법제의 비교와 통일법의 모색에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끝을 맺는다.

박영사/A5신/646면/13000원

# 그림으로 풀어쓴 한국경제 계몽서

「만화로 보는 한국·한국인·한국경제」



이원복(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 교수와 송병락(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만화로 보는 자본주의·공산주의」에 이어 두번째 ‘사회과학 만화’인 「만화로 보는 한국·한국인·한국경제」를 펴냈다. 송교수의 「한국경제론」 제3판을 토대로 한 이 책은 만화라는 당의정을 입혀 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제경쟁력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높여려는 의도를 지닌다.

저자들은 “백 말씀이 불어일만화”라며, 독자층이 넓고 가독율이 높은 만화의 효용론을 개진한다. 세계에서 경제를 가장 잘 아는 나라는 일본인데, 기실 그들의 경제지식은 만화에 의지했다는 것이다. 로봇을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로 그려내는 미국 만화가들과는 달리 일본 만화가들은 “유용한 존재”로 표현했는데, 그 결과 일본은 미국보다 7배 이상의 산업용

로봇을 보유케 되었다는 것.

이 책은 “현재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 유럽의 EC,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는 미국경제 규모의 2배나 되는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세계경제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위상과 특징을 비교·파악한다. 투자주도형 단계의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혁신주도형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민간 주도형 경제운용”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유교 윤리와 청교도 윤리를 합친 “신유교 윤리”를 경제전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관으로 내세운다.

이렇듯 어려운 내용을 “은 국민이 다같이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림’과 만화의 화자인 ‘신한국氏’와 그의 주변인물들의 재기발랄한 발언일 터이다. 예를들어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90년대에는 10개의 대변화 물결이 일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 신한국氏의 친구는 “점쟁이 얘기야?”라고 간죽거린다. 10개의 대변화 중 셋째인 “어느 나라의 경제나 독자적인 국가경제가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로 연결된 지구촌경제에 속하게 된다”는 지문이 두 컷에 나뉘는데, 신한국氏의 동료들은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자!” 했다가 뒤의 컷에서는 “일 해줄게!” “대신 식량!”이라며 입장을 수정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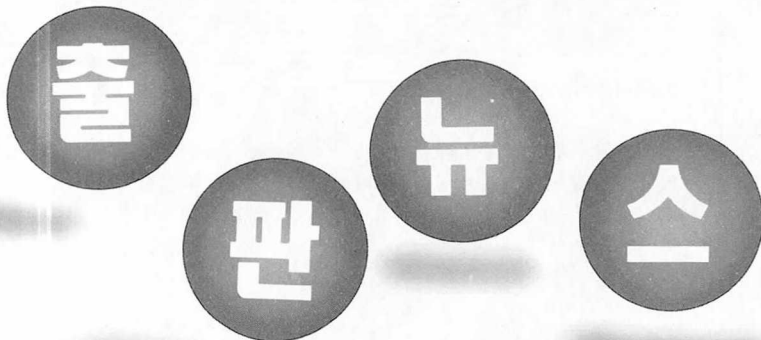
송병락교수는 그의 머리말에서 “세계적 석학들의 경제관을 많이 소개하고자 했으며, 국민학생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꾸몄다”고 밝힌다.

동아출판사/A5신/256면/5000원

기획·편집디자인 / 제판 / 인쇄 / 제본 / 카다록 / 학위논문 / BOX / 식순지 / 설교집 / 월간지 / 사보 / 안내장 / 단행본 / 앨범 / 출판문화의 다양한 노하우를 드립니다.

출판문화의 다양한 노하우를 드립니다.

디자인예념 Christian Design TEL: 269-2779 279-2626 FAX: 268-5991 1100-1340 서울시 중구 산림동 207-2 (대림상가668호)



디자인의 생명력인 감각과 센스를 통해 한층 더 효과적인 메세지 전달에 충실합니다. 숙련된 편집디자인에 의한 짜임새 있는 Ray-out을 선사하며 모든 출판물의 얼굴인 표지디자인에서 격조높은 이미지를 창출합니다.

### 특징

- ◎ 편집기능이 다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식자기
- ◎ 화면에서 페이지업이 가능함.
- ◎ PC로 입력한 원고도 변환가능
- ◎ 고급인쇄물 제작을 위한 수동식자기 보유
- ◎ 교정지로 교정후 인화지 및 포지필름으로 출력가능

식순지 / 설교집 / 월간지 / 사보 / 안내장 / 단행본 / 카렌다 / 카다록 / 앨범 / 다이어리 / 설교집 / 표지디자인 / 전산사식 / 제판